

오늘의 기사관

새마을 부녀회 송편 나누기 행사

행사 (2일)
▲제 10회 노인의 날 기념식=오전 10시30분 광주 시민회관.
▲광양항 냉동·냉장창고 및 복합운송창고 개장식=오전 10시30분 광양시 SK네트웍스 앞.
▲새마을 부녀회 송편나누기 행사=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구민생활관.
▲2006 권리흥터 발대식=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두암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전남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오전 10시 상무역. 배·합살·키조개 등 각종 농·수산물과 전복·벌치역젓 등 안도군 수산물 판매.
(3일)
▲개천제재행사=오전 9시30분 광주단성전.

공연
▲제 45회 광주연우회 정기연주회=3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주문예회관 대극장. 모차르트 2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연주회로,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하이라이트 부분 공연.
▲오승석 초청 첼로 독주회=3일(화) 오후 4시 광주주문예회관 소극장. 슈베르트·아르페지오내 소나타 등 연주.
▲동시대 의상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2일까지 상계갤러리.
▲조선대 디자인학부 졸업전=7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신세계미술제 해외교류전=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전남대 평생교육원 동양화과정 전시회=8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광주비엔날레 기념 'Paper Propose전'=2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광주비엔날레 기념 '손아유진'=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2층.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미술 오케스트라'=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타향속에 삶과예술=11월 14일까지 의재미술관.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역사속의 오늘

▲배화학당 설립(1898)
▲언론인 위암 장지연 세상 떠남(1921)
▲한국간호사, 첫 독일 파견(1966)
▲프랑스의 화가이자·조각가인 마르셀 뒤샹 사망(1968)
▲레흐 바웬사, 폴란드 자유노조위원장 재선(1981)
▲미국 배우 록 허드슨, AIDS로 세상 떠남(1985)
▲현대 정주영 회장 일가에 대해 세무 조사(1991)
▲미국 미식축구선수 O.J.심슨 무죄판결(1995)
▲80년대 농구 스타 김현진 코치 교통사고 사망(1999)
▲'안타 제조기' 스키이치로, 260개 최다안타 신기록 수립... 시슬러 1920년 기록 경신(2004)

뉴스퀴즈

32. 순수 국내파 피아니스트가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지난달 24일 영국에서 폐막한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즈 콩쿠르는 쇼팽 콩쿠르, 반 클라이번 콩쿠르와 함께 세계 최정상급의 피아노 콩쿠르로, 한국인 연주자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지난 1963년 창설된 이 대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김선욱 ②정명훈 ③조수미 ④장하나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쿼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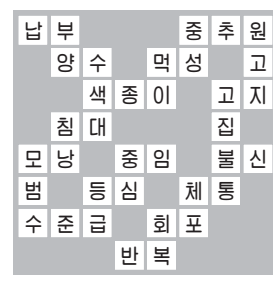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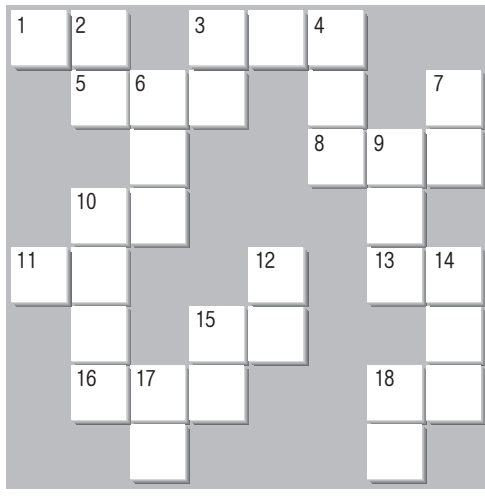
→ 가로풀이

- 1.조선시대 포도청에 있던 군사를 이르는 말.
3.운동경기 등에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의 싸움. 그는 ~에 부상을 당해 뛰지 못했다.
5.잡쌀가루, 밀가루, 수수 가루 등을 반죽해 둥글고 넓게 하여 지진 떡. 팔소를 넣기도 한다.→전병.
8.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목표물이 ~ 안으로 들어왔다.
10.벼의 겉껍질만 벗겨 낸 쌀. 솥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고 누르스름하다. 우리 집은 현미로 밥을 해먹는다.
11.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겉모습. 그는 ~가 깔끔하고 단정하다.
13.살고 있는 지역을 근거로 하는 연고(緣故) 관계. 혈연이나 ~을 따지지 마라.
15.가족이 일상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 가족 모

두 ~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16.아내의 할아버지.
18.사람의 발자취. 또는 사람의 왕래. ~이 뜬한 새벽 산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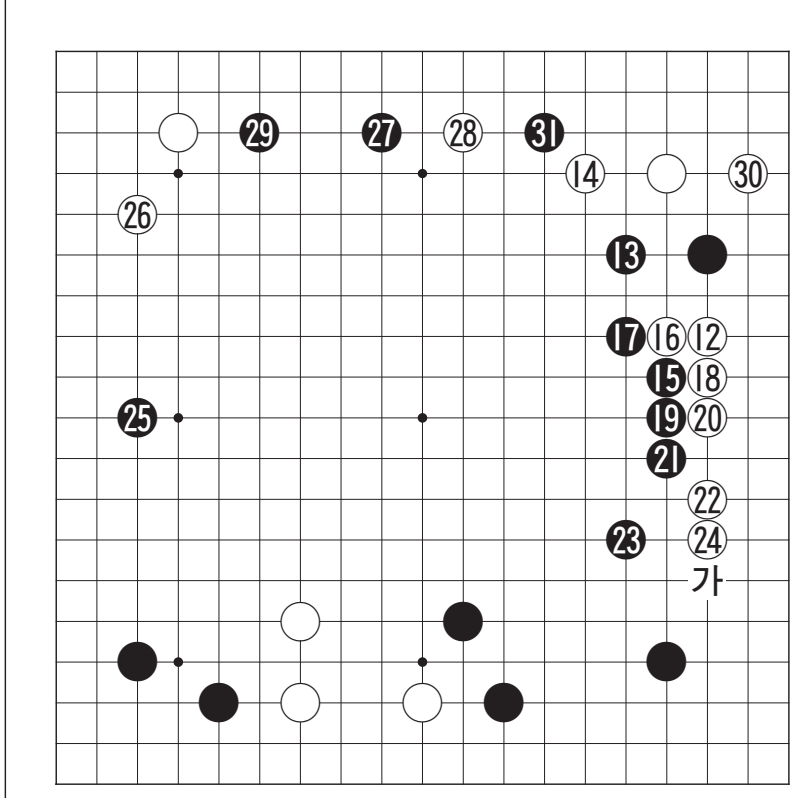
↓ 세로풀이

- 2.갑자기 된 부자.→벼락부자.
3.눈썹에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 매우 급함을 이르는 말. 노사 양측의 견해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의 관심사이다.
4.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경제 ~를 초빙해 경기부양책에 대해 질문을 했다.
6.수령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꾸러미 짠 물건을 세는 단위. 또는 꾸러미 짠 물건. 달걀 한 ~.
7.식당이나 음식점 등에서 내민 음식을 주도록 되어 있는 표.
9.시(市)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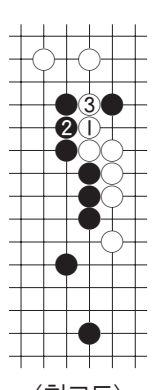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220회 정답>

- 국무회의가 열렸다.
18. 사람이 만들. 또는 그런 물건. ~ 모피. ~ 잔다.
▲지난주 정답자 김대용·광주시 북구 연제동 심유진·광주시 북구 동림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제15회 光日盃

직장바둑의 평준화 2보(12~31)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번 대회 우승팀, 그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 2개팀을 출전시켜 연속우승을 노렸으나 올해에는 반타작에 그쳐 우승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전대회 우승팀이 중위권에 속할 정도로 이번대회는 각 팀의 실력이 평준화되었다.
나주시청팀은 첫 출전임에도 2개팀을 출전시키고 예비팀까지 구성하고 있어 어느팀보다도 바둑열기가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다. 머지않아 직장바둑계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후 13으로 뛰고 23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정석이다. 이 다음 백 24는 구형이고 최근에는 '가'로 많이 두고 있다. 24로는 또 '참고도'의 백 1, 3으로 뚫는 변화도 생각할 수 있었다. 흑 31이 서재중 5단의 타이틀 승부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최철한·송태근 기성전 8강 진출

최철한 9단과 송태근 8단이 최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8기 기성전 본선토너먼트 16강전에서 각각 하영호 5단과 조훈현 9단을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최철한 9단은 8강전에서 안조영 9단과 격돌하며, 송태근 8단은 이세돌 9단·최규병 9단 간 대국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지난 2004년 국수, 천원, 기성 타이틀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던 최철한 9단이 이번 기성전을 발판으로 다관왕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회 우승상금은 1천800만원(준우승 6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45>

Be careful! 조심하세요!

A:Oops! Excuse me!
B:Ouch! You hurt my feet.
A:I'm sorry. Are you OK?
B:Be careful!
A:아이쿠! 죄송합니다!
B:어흐, 내 발...
A: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B:조심하세요.
Excuse me?: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발을 밟거나 하여) 미안합니다.
hurt : 다치게 하다
Are you OK? : 괜찮으세요?
- OK : 건강한, 심신이 양호한
- OK <미> '우편' Oklahoma
Be careful! =Take care! = Watch it!

오하이오 니혼고 <745>

今日は何かとって食べる? 오늘은 뭔가 시켜서 먹을래?

A:もうそろそろ、お昼(ひる)ね。今日は何かとって食べる?
B:いいね。たまには、ラーメン餃子(ぎょうざ)でも食べる?
A:私はジャジャめんにするわ。
B:とにかく、電話(でんわ)で出前(でまえ)とってくれよ。もうお腹(はら)がペコペコだよ。
A:이제 슬슬 점심이군. 오늘은 뭔가 시켜서 먹을래?
B:좋아. 가끔은, 만두라면이라도 먹을까?
A:나는 자장면으로 할래.
B:어쨌든 전화로 주문해 줘. 벌써 배가 몹시 고프다.
お昼(ひる): 점심
出前(でまえ)とる: 주문해서 요리를 배달 받다
餃子(ぎょうざ): 중국식 만두의 하나
お腹(はら)がペコペコだ: 배가 아주 고프다

니하오 풍구워 <463>

头有点儿晕 머리가 조금 어지럽습니다

A:能告诉我有什么症状吗?
B:最近感觉有点晕, 还有点恶心.
A:还有别的症状吗?
B:还有点晕.
A:那要不要去医院看看?
B:不用, 休息一下就好了.
A:那要不要吃点药?
B:不用, 休息一下就好了.
A:那要不要吃点药?
B:不用, 休息一下就好了.

한자 이야기 <363>

夫餘(부여) 지아비 부, 나머지 여

부여(夫餘)는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뿌리에 해당하는 나라이다. 부여는 백두산(白頭山)에서 시작하여 만주(滿洲) 땅을 흐르는 송화강(松花江) 상류의 기름진 땅에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쯤에 자리 잡았다. 부여의 지배세력이나 구성원들은 동이족(東夷族)의 한 갈래인 맥족(貊族)이다. 고구려의 시조(始祖)인 주몽이 태어나 자란 곳도 이곳이다. 부여의 정치체제에서 왕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가평의회(諸家評議會)에서 모든 중요사항을 결정하였다. 제가는 모두 4명으로 마가(馬加), 우가(牛加), 저가(猪加), 구가(狗加)이다. 이들은 각기 한 지방을 맡아 다스리면서 지방과 중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 이들 제가(諸家)들은 수도(首都)를 중심으로 4곳으로 나눈 지역을 각기 하나씩 맡아서 다스렸는데, 중앙의 도로에서 이 4지역으로 출발하는 것을 '사출도(四出道)'라고 한다. 마치 옷날이의 말판을 연상시키는 형상이다. 부여는 철저한 남성 위주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음란과 투기를 하는 부인은 모두 죽여 없앨 정도였다. 부여의 지배층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며 화려로운 생활을 하다가 결국 고구려에 망하고 말았으나, 중국 한나라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